

HEADLINE NEWS

건강정보와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시민건강축제 개최 (캔자스시티/클리블랜드)

미국 캔자스시티는 시민들에게 건강정보와 무료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Fun Walk Day & Health Fair」를 최근 개최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60여개 협력단체들은 캔자스시티 전역을 걸으면서 건강관련 정보를 담은 팸플릿 및 안내책자 등을 배포했다. 간단한 음식 및 경품 제공, 아이들을 위한 운동 소개, 라디오 야외공개방송 등의 행사도 진행되었다. 또한, 참가시민들을 대상으로 당뇨병, 콜레스테롤, 고혈압, 에이즈바이러스(HIV)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또한, 클리블랜드시는 최근 지역 내 홈리스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보건자선행사 「Community Health Fair」를 개최했다. 이번 자선 행사에서는 혈압검사, 시력검사, 당뇨병, 골다공증, 결핵검사, 에이즈바이러스(HIV)검사 등 각종 건강검진 서비스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의료보장제도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등록을 지원했으며, 영양학, 주택프로그램, 노동자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www.city.cleveland.oh.us/mayor/press/2004/200404/04_02_2004.html)

(www.kcmo.org/cco.nsf/49316057a17205018625677000706ebf/553c26e70fe0e4ba86256e7c004d28fc?OpenDocument)

HIGHLIGHTS

도시관리

- 1 낙후된 도시지역 활성화를 위한 「STAR」프로그램 추진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

도시환경

- 2 국가 차원의 토지 수복 프로그램 추진 (영국 전역)
- 3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고속도로에 유수필터 설치 의무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

도시교통

- 4 민영화된 '동경메트로' 지하철 승객 서비스 개선 추진 (동경)
- 5 도심내에서의 배달용 자전거 안전운행 홍보프로그램 실시 (뉴욕)
- 6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위해 3바퀴 자동차 개발 (유럽)

사회복지·문화

- 7 노인인구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추진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 8 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커뮤니티 취업박람회」 개최 (오스틴)
- 9 예비은퇴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세미나 개최 (라스베이거스)
- 10 소방관을 위한 주택구입 보조프로그램 발표 (뉴올리언스)

행재정

- 11 48시간 내 거리 보수를 위한 핫라인 개설 (캔자스시티)
- 12 공공도서관의 장래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의견 모집 (오스틴)
- 13 광견병 예방과 애완동물 허가를 위한 진료 실시 (캔자스시티)

도시 관리/도시 환경

■ 세계도시동향 ■

① 낙후된 도시지역 활성화를 위한 「STAR」 프로그램 추진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

최근 미국 앨라배마주의 경제·교육·문화 개발을 위한 협의회(ACES)는 주의 낙후된 도시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STAR(Saving Towns At Risk)」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스타프로그램팀은 시와 카운티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교육·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ThinkTank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ACES협의회는 주의 도시와 카운티들을 대표하는 광범위한 조직으로, 낙후된 중소도시의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STAR」 프로그램 외에도 주민의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고 육체적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걷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www.al.com/news/huntsvilletimes/index.ssf?/base/news/1079030836195060.xml)

(www.aces.edu)

② 국가 차원의 토지 수복 프로그램 추진 (영국 전역)

최근 영국정부는 버려진 토지들을 녹지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토지 수복 프로그램 「Land Restoration Trust」를 추진키로 했다. 향후 10년간 민간협력으로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영국 환경청과 산림청, 그리고 다양한 비영리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영국 전역에 산재해 있는 수천만 에이커에 달하는 브라운필드나 버려진 토지를 공공의 녹지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다. 이 토지 수복 프로그램은 버려진 토지나 건물을 단순히 정리하고 청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전환시켜 나감으로써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ociety.guardian.co.uk/urbandesign/story/0,11200,1186968,00.html)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③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고속도로에 우수필터 설치 의무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市)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비가 올 때 고속도로 표면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고속도로에 수질오염방지필터를 설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도로표면은 오일, 부동액, 타이어 마모 때문에 생기는 고무가루, 브레이크 마모로부터 나오는 미세금속, 각종 미세한 독성물질 등 수많은 유해물질로 오염되어 있다. 비가 오면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빗물을 타고 주변에 흐르는 냇가나 강으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을 일으키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주의 환경단체들은 약 10년 전부터 도로표면의 수질오염 문제를 市에 제기해 왔으며, 1993년에는 교통국을 상대로 수질오염 저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통국은 15,000마일에 달하는 고속도로에 수질오염방지필터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며 환경단체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www.latimes.com/news/local/la-me-caltrans8apr08,1,7265409.story?coll=la-headlines-california)

④ 민영화된 ‘동경메트로’ 지하철 승객 서비스 개선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에서는 ‘동경메트로’로 민영화된 영단(営團)지하철이 처음으로 TV 광고를 제작하여 최근 관동지방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민영화 이후 ‘동경메트로’는 환승, 승차권 구입을 안내하는 서비스매니저를 긴자, 우에노, 니혼바시의 3개 역에 3명씩 상근시키고, 고령자와 외국인 등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보조하고 있다. 또한 노선도 및 환승표지판이 잘 보이도록 표지판 개선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승객 분실물의 특징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각 역에서 단기간에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며, 지하철내 영어방송도 시작할 예정이다.

(mytown.asahi.com/tokyo/news02.asp?kiji=2926)

5] 도심내에서의 배달용 자전거 안전운행 홍보프로그램 실시 (뉴욕)

미국 뉴욕시는 도심내에서 배달용 교통수단으로 쓰이는 자전거의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홍보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Transportation Alternatives'라는 시민단체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배달을 하는 식당 영업주와 배달원에게 자전거 이용시 안전장비를 철저히 갖추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자전거 배달을 하는 업주 및 관련 공무원 등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 포스터에는 자전거 배달시 종업원과 업주가 준수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교통법규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액수까지 명시하고 있다.

(www.transalt.org/press/askta/040407working.html)

6]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위해 3바퀴 자동차 개발 (유럽)

도심지역의 교통혼잡과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바퀴 자동차 'CLEVER(Compact Low Emission Vehicle for Urban Transport)'가 유럽연합의 후원으로 최근 개발되었다. 기존 자동차의 안전성과 오토바이 못지 않은 유연성을 조화시킨 이 자동차는 시속 50마일의 속력을 낼 수 있다. 'CLEVER'는 도심내에서의 운행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앞좌석은 운전자만 앉을 수 있고 뒷자석은 2명이 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오염물질 배출도 적은 편이며, 가격은 기존 자동차 가격의 1/5 수준이다.



(news.bbc.co.uk/1/hi/technology/3610083.stm)

7 노인인구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추진 (애리조나주: 피닉스市)

미국 애리조나주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세대들이 날씨가 좋은 애리조나주로 대거 이동해 올 것을 대비하여 주정부 관련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노인을 위한 2020년 계획(Aging 2020 Plan)」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주의 인구구성과 가구특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은퇴한 노인인구들에게 적합한 주거, 의료, 교통 서비스를 공급·확충하는 데 있다. 주는 또한 “노인인구의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곧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8 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커뮤니티 취업박람회」 개최 (오스틴)

미국 오스틴시는 장애인의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와 취업시장의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취업박람회(Community Career Expo)」를 5월 6일에 개최했다. 올해로 6번째인 이 취업박람회는 직장을 찾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고용을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50명 이상의 고용주가 참여하여 전문직·사무직·의료직·고객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 전날에는 구직자를 위한 예비심사서비스(pre-screening service)를 새롭게 실시했다. 이 서비스는 취업박람회가 참가자들에게 성공적인 구직 기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력서 작성, 지원 기술, 직업탐색을 위한 워크숍 등을 실시한 것이다.

(www.ci.austin.tx.us/news/2004/career_expo2004.htm)

9] 예비은퇴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세미나 개최 (라스베이거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市는 노인자문위원회(Senior Citizens Advisory Board)의 후원으로 은퇴가 머지 않은 분들을 위한 「예비은퇴자 세미나(pre-retirement seminar)」를 개최했다. West Charleston 공공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예비은퇴자들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보장을 신청하는 방법, 65세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은퇴한 후 배우자가 계속 일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험 등 다양한 정보가 참가자들에게 제공되었다. 각종 정보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는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기관들과 참가자들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www.ci.las-vegas.nv.us/108_8277.htm)

10] 소방관을 위한 주택구입 보조프로그램 발표 (뉴올리언스)

미국 뉴올리언스市는 소방부서, Hibernia National Bank와 연계하여 소방관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구입 프로그램 「Operation Welcome Home」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방관들과 소방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주택을 처음 구입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최고 20,000달러까지 10년만기 무이자 대출, 市의 「고용자 주택구입 보조프로그램」으로부터 2,000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소방관들을 위한 주택구입 프로그램은 市에서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경찰관들을 위한 주택구입 프로그램을 소방관들에게 확대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주거복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은행과 공조하여 다른 부서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biz.yahoo.com/bw/040129/295800_1.html)

48시간 내 거리 보수를 위한 핫라인 개설 (캔자스시티)

미국 캔자스시티(Kansas City)는 거리 보수를 위해 긴급직통전화인 '48-Hour Pothole Hotline'의 위탁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거리의 파인 곳이나 결함이 있는 곳을 발견해 전화 (816)513-9224로 신고하면, 아무리 곳은 날씨가라도 48시간 안에 보수할 방침이다.

핫라인은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핫라인 상황센터(Action Center)에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이 지역별 위치를 분류한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져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그 다음, 파악된 위치에 가장 가까운 현장사무소에서 해당정보를 받고 바로 보수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www.kcmo.org/ccco.nsf/web/031604)

공공도서관의 장래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의견 모집 (오스틴)

미국 오스틴市 공공도서관은 향후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 계획의 수립을 위해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4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의견제시를 위한 자리를 모두 5차례 개최했다.

오스틴 공공도서관은 시민포커스그룹(public focus groups)을 통해 현재의 중요 서비스와 미래의 기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포커스 그룹은 공공도서관 발전에 있어 그 서비스를 계획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www.ci.austin.tx.us/library/news/nr20040401.htm)

미국 광견병 예방과 애완동물 허가를 위한 진료 실시 (캔자스시티)

미국 캔자스시티는 광견병 예방과 애완동물 허가를 위한 진료를 최근 실시했다. 市の 애완동물 조례에 따르면, 市에서 4개월 이상 개나 고양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市에 있는 215,000마리의 애완동물 중 약 12%만이 정당하게 市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통제사무소는 市전역을 찾다니며 허가를 받지 않은 애완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1번째 적발시 최소 75달러, 2번째 적발시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市는 애완동물 조례의 집행과 함께 광견병 예방접종과 애완동물 면허를 위한 진료도 실시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개들은 가죽끈에 매어 있어야 하며, 고양이는 애완동물 운반상자 안에 있어야 한다. 애완동물 허가증을 발부받게 되면 무료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난소제거나 거세한 애완동물은 허가증을 발부받는 데 7달러, 그렇지 않은 애완동물은 허가증을 발부받는 데 30달러를 내야 한다.

(www.kcmo.org/ccco.nsf/49316057a17205018625677000706ebf/90893ab30d2a521e86256e6f005097e0?OpenDocument)